

보도 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8. 31.(수) 09:00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태풍 피해서 다시 수족관으로

-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에 대비하여 퍼시픽리솜 수족관으로 이송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에 대비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서 야생적응 훈련 중인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8월 31일(수) 09시에 퍼시픽리솜 수족관으로 긴급 이송한다고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제주지역에는 강풍과 3m 이상의 높은 파고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비봉이가 야생적응 훈련 중인 해상 가두리가 파손되거나 그물이 엉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9일(월) 비봉이 방류 협의체* 및 기술위원회 전문가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해 비봉이를 안전한 수족관 수조로 재이송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31일(수) 09시 비봉이를 퍼시픽리솜 수족관으로 다시 돌려 보내게 되었다. 비봉이는 당분간 수족관에서 먹이 사냥 훈련 등 야생 적응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 비봉이 방류 및 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협의·결정하는 협의기구
(해양수산부, 제주도, 호반호텔앤리조트, 핫핑크돌핀스, 제주대학교 참여)

제주 해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야생 훈련용 가두리를 보수하는 등 비봉이를 다시 가두리훈련장으로 보낼 여건을 조성하는데 열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봉이는 추석연휴 이후 다시 가두리훈련장으로 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태풍으로 인해 비봉이의 안전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잠시지만 다시 수족관으로 보내게 되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비봉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류 협의체 및 기술위원회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야생 적응훈련 등 방류 준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